



# 남도 맛의 향연

### ‘음식문화큰잔치’ 순천 낙안읍성 11일 개막

남도음식의 향연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1일 막을 올린다. 전남도는 7일 “전통 남도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제2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오는 11일부터 3일 동안 순천 낙안읍성에서 ‘남도음식, 20번째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달(으뜸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행렬로 시작되는 축제에서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10월, 풍년농사에 대한 감사의 제를 올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상달제를 지내며 22개 시·군에서 올라온 진설음식으로

로 제를 올린다. 남도음식 전시관은 주제관과 시·군관, 명인관 등 3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주제관은 남도의 풍부한 농·수·축산 임산물을 사용한 건강음식, 시·군관은 22개 시·군의 독특한 남도음식, 명인관은 남도음식 명인의 최고 음식들이 전시된다. 시·군 대표음식 판매장터엔 22개 시·군의 대표 음식점들이 참여해 남도 특유의 음식을 판매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터엔 친환경으로 생산된 시·군의 특산물을 판매한다. 올해 대회는 기존 일반부, 대학부에

고등부를 신설해 3개 부문으로 운영해 남도음식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남도음식 명인’ 7명을 지정해 축제 행사장에서 지정서와 지정패를 수여하고 남도음식 명인 전시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음식 전문가 특강과 다도체험, 남도음식 배우기, 군악단 체험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이승우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축제로 가꿔나가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다”며 “전남의 친환경 재료로 만든 건강음식을 많은 관광객이 함께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음식 시식코너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기간인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 e-관한세상 아파트 대로변 앞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낙안읍성 축제장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양 대형마트 영업규제

## 시간제한·의무휴업 시행

### 다음달부터

광양시는 7일 “최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영업규제안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예고,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이행, 다음달

부터 영업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점, 롯데슈퍼 마동가맹점 3곳이다. 이들 마트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윤인후 광양시 부시장장을 위원장으로 대형·중소유통기업, 소비자·주민단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세계 명차 보성서 ‘자옹’ 25~27일 품평회

보성군은 7일 “세계명차품평대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야외공연장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계명차품평대회조직위원회와 보성차생산자조합의 주관으로, 한국차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회 마련 등을 위해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세계 티 포럼 창립회의, 제6회 대한민국차품평대회, 세계명차품평대회 등이며, 부대행사로 차 문화 산업문화관 운영, 차 문화공연 등이 마련됐다. 대회 첫날은 (재)명원문화재단의 공중다례 시연을 시작으로 기념행사, 녹차·발효차 분야를 품평하는 대한



민국차품평대회 예선과 세계티포럼 1차 회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대한민국차품평대회 본선, 18개 품목을 심사하는 세계명차품평대회 예선이 이어지고 대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세계명차품평대회 본선, 세계 티 포럼 창립식, 시상식이 진행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여수시, 우수시책 벤치마킹

### 26개 발굴 시정 반영

여수시가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7일 “지난 9월부터 각 부서 별로 전국의 지자체 시책을 분석·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12개 분야 26개 시책을 최종 선정, 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행정, 복지, 문화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된 이번 시책은 민원편의성, 사업효과성 등 기존 사업에 추진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 등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시책으로는 여수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 대도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폐교활용 캠핑장 조성 사업, 도시녹화를 위한 옥상양봉 사업, 지역특산물 시식체험 관광사업 등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특히 경관분야의 남산동 색채 문화시범사업은 노후 지역에 대한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문화요소가 접목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관과 도시재생 개선, 관광효과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과제 등 시정전반의 추진사업에 우수사례를 접목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발굴시책은 세부 추진방안 마련과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 될 예정으로 시에서는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추진될 시책과 함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을 격상시킬 수 있는 시책 마련에 전 부서가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정읍, 아열대 과수 재배

## 농기센터, 감귤·구아바 등 화분 재배 성공

정읍지역에서 감귤과 석류, 구아바 등 아열대 과수 분화재배(화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아열대 작물을 실제로 분화재배한 후 평가결과로, 전북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틈새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과수실증시험포에서 과수·채소 재배 농가 50명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소득기술분야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 및 과수·채소 시범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참석자들은 감귤 및 석류 등 아열대 작물의 분화재배 실증시험 평가와 시설하우스 석류 재배 시범사업, 딸기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문제제기, 개선책을 강구했다. 기술센터는 이날 감귤, 석류, 구아바 분화재배 실증시험 결과 정읍지역은 분화재배를 통한 틈새시장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기상이변에 따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시설하우스 3중 하우스 덮기와 함께 온도감응센터 개폐장치를 이용한 자동온도 조절을 통해 꽃샘추위에 따른 동해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회에서는 또 딸기저면관수 공동육묘 시설이 딸기 육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 방제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건전육묘를 3만주 생산해 딸기 하우스 1100㎡에 정식한 결과 건전 육묘 정식이 딸기 수확량의 증대에 기여한 것이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이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과 작물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영농기술과 보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술센터는 오는 15일 ‘달래 재배 연시회 및 구절초를 이용한 화재차원이용 부가가치 향상 상품개발에 관한 평가회’를 열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북

## 단신

## 전주 무형유산원, 보유자 초청 공연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초청, 합동 공개행사를 한다. 이들 장인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1층 교육장에서 송기, 한지, 목조각, 모시 짜기, 갓, 금수활자 등의 전통 제조과정을 재현한다. 총 17명의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유자들이 요일별로 16개 종목

을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선보인다. 전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의 태평소 보유자인 고 김태섭(1922~1993년)씨가 제자인 정재국씨와 함께 자필로 구유를 기록한 피리구유보를 비롯,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정달영이 생전에 연주한 가야금 등을 선보인다. /전주·군산=박금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고창군, 구제역·AI 방역 강화 상황실 운영

고창군은 7일 “최근 행락철을 맞아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이 잦아져 구제역 및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AI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

황실은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실태와 유사 시 대응체계 점검 등 차단방역에 나서게 된다.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도록 해 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전북도, 29일 국정감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감사반(반장 이찬열·민주당)은 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영주·박덕홍·박성효·유승우·진영, 민주당은 김민

기·문희상·백재현·이해찬, 통진당은 이상규 의원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들의 현장 방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는 정전 사항별로 예상질의 답변을 작성하는 등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주·군산=박금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 팔도장터 관광열차, 내일 남원시장 방문

전국 팔도의 대표 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9일 오후 남원공설시장을 방문한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한 문화 관광상품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에게 전통시장의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코레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시범사업이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일 순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순창군내에 거주하는 276명의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최영일 군의회의장, 순창군 공무원 및 다문화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축제에서 국가별 음식체험과 축하공연, 공연과 결혼이주여성간 생활멘토·멘티 결연식, 다문화가족 어울림운동회 및 나라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 국악의 성지 남원서 ‘국악대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6명 초청 ‘어울림 한마당’

2013년 대한민국 국악대제가 사단법인 민족국악진흥회 주관으로 지난 5일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열렸다. 국악대제 행사는 국악 본고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악선인들을 추모함은 물론 전통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을 통해 국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악인,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개계, 초헌례, 축문낭독, 아헌례, 종헌례, 분향, 도약참배 등의 순으로 1시간30여분 간 이어졌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비나리’, 진도씻김굿보존회의 ‘씻김굿’이 공연됐으며 제례악은 남원시립국악단 기악부가 연주했다. 대제는 초헌관 박형규 남원시부시장, 아헌관 김성범 남원시의회의장, 종헌관 조상연 명창이 주도하고, 집례는 전인삼 전남대 국악과 교수가 맡았다. 국악대제 기념 공연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 산조 전수조교인 김무길 명인의 거문고 공연과 제자들의 합주, 도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궁가의 예능보유자인 박양덕 명창의 판소리 한 대목 등이 마련됐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유럽·호주 태권도협, 전북 방문 교류 협의

독일 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한 유럽과 호주 태권도 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20여명이 7일 전주를 방문했다. 이들은 9일까지 무주 태권도원과 무주 리조트, 전주한옥마을, 새만금 등을 둘러보고 태권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 태권도협회장

을 비롯 독일 바이에른주 태권도협회장·부회장 등이 동행하고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 호주의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태권도와 연계한 유럽 및 호주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주·군산=박금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